

『세켄 무스메 가타기(世間娘氣質)』의 구상(構想)

고영란*

youngrankoh@hanmail.net

차례

1. 서론
2. 본론
 - 2.1 『무스메 가타기』의 서문
 - 2.2 『무스메 가타기』와 『무스코 가타기』의 도입부
 - 2.3 『무스메 가타기』와 『무스코 가타기』의 공통 화소
 - 2.4 『무스메 가타기』의 결말부
3. 결론

요지

『世間娘氣質』と『世間子息氣質』の先行比較研究は主に兩作品の話素の類似点と相違点を擧げることであった。本稿では兩作品の話素の比較により得られるものを追って行きたい。これは『世間娘氣質』をはじめ氣質物の特徴を把握する上で大變有效な作業であり、浮世草子史上の『世間娘氣質』の位置づけとも關連してくる。その方法として、兩作品の序文、導入部、本論、結末部の順に具體的内容を確かめていくことにする。

本稿で行われた比較分析の結果、明確になったことは次の四点である。第一に『世間娘氣質』の序文を『世間子息氣質』、『本朝二十不孝』の二つの序文と比較してみると、本作品の一次的執筆意圖は單に娛樂性にあると考えられる。第二に、江島其磧は『世間娘氣質』に對する讀者の期待、即ち『世間子息氣質』を繼ぐ氣質物であるので前作と同様、娛樂性の裏面に教訓性を有しているであろうという讀者の期待を裏ぎって、作品の導入部より逆轉の面白さ、つまり意表を突く話素を展開させる。第三に『世間娘氣質』は全17の話素のうち、8の話素を『世間子息氣質』と共通の話素にしているという点である。即ち『世間娘氣質』の執筆は『世間子息氣質』を前提にしていることには間違いないと言えるのである。最後に序文と導入部で江島其磧の『世間娘氣質』の逆轉の意圖に氣づいた讀者は本作品を『世間子息氣質』と『本朝二十不孝』のうち、自然前者に近いものとして讀み進めたであろう。しかし、最終章に至り作者はもう一度彼の得意技である逆轉の修辭學を驅使する。

結論を急げば、『世間娘氣質』は『世間子息氣質』の影響を最も濃厚に受けた点は認めながらも、その構想に於いて『世間子息氣質』を意識したと同時にこれを逆轉させ用いようと

* 고려대학교 일어일문학과 박사수료

した点にも注目すべきである。これは『世間娘氣質』の導入部により證明された。そして、江島其磧はもう一度讀者の意表を突き、逆轉の發想を用いて結末部に『世間子息氣質』よりは『本朝二十不孝』の構想を明確に用いるのである。したがって、江島其磧は『世間娘氣質』の執筆に於いて、文章の修辭法としてのみ逆轉の手法を用いるのみではなく、この作品の全體の構想に於いても逆轉の手法を採ったと言えるだろう。

키워드 : 『무스메 가타기』, 『무스코 가타기』, 구상(構想)의 반전

1. 서론

『세켄 무스메 가타기』(이하 『무스메 가타기』라고 한다.)는 에지마 기세키(江島其磧, 1666-1735, 이하 기세키라고 한다)의 가타기모노(氣質物)이다. 가타기모노란 우키요조시(浮世草子)의 범주에 해당되는 작품으로서 일반적으로 특정 직업, 직위의 사람들의 특성이나 기질을 그린 소설류를 가리킨다. 이 작품은 기세키의 두 번째 가타기모노로서, 첫 가타기모노인 『세켄 무스코 가타기(世間子息氣質)』(이하 『무스코 가타기』라고 한다.)가 출판된 교호 원년(1715)보다 2년 뒤인 교호(享保)2년(1717)에 출판되었다.

그런데 『무스코 가타기』의 선전란(刊記横)에서 이미 『무스메 가타기』는 예고되고 있었다. 이와 같이 『무스메 가타기』는 『무스코 가타기』집필 시에 이미 구상되어 있었으며, 그 제목으로 비추어 보아도 『무스메 가타기』는 『무스코 가타기』의 후작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자는 『무스코 가타기』에 대하여 발표한 바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존 연구에 의해 『무스코 가타기』는 사이카쿠(西鶴)의 『혼초 니주후코(本朝二十不孝)』(이하 『니주후코』라고 한다.)를 패러디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지만, 기세키의 경우, 『니주후코』와 같이 ‘효(孝)’의 장려를 위해 불효자를 전면적으로 그려낸 것이 아니다. 오히려 기세키는 ‘아들에 대한 부모의 교육의 필요성’을 장려하기 위해, ‘우인(愚人)’적인 부자(父子)의 모습을 우스꽝스럽게 그렸다. 『무스코 가타기』 또한 중국에는 ‘효’의 장려로 이어질 수 있겠으나, 이 작품의 집필 방법은 사이카쿠가 사용한 가나조시의 역설적 방법, 즉 인과응보를 보여주는 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무스코 가타기』의 특

1) 2004년 7월 동서대학에서 『무스코 가타기』에 대해 발표한 바 있다.(한국 일본 학회 발표)

정은 그 집필 방법에 있어서, 『니주후코』와 구별된다. 기세키는 『무스코 가타기』에서 ‘아들들에 대한 부모의 교육의 필요성’을 장려하기 위해 우인적 부자의 모습에서 점차 현명한 부자의 모습으로, 다시 말해 단계별로 그 유형을 보여주는 집필방법을 사용했으며, 이를 통해 『무스코 가타기』의 교훈성 및 오락성의 이중적 성격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고에서는 앞선 연구의 후속 작업의 하나로서 『무스메 가타기』를 고찰해 가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서문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무스메 가타기』와 『무스코 가타기』의 내용을 비교 연구하며, 마지막으로 두 작품의 특성이 무엇을 의미 하는가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첫 가타기모노 이후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으며, 아울러 기세키가 가타기모노 연작(連作)화를 위해 어떠한 수법을 사용하였는가에 대해 살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무스메 가타기』에 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주된 연구로는 하세가와 쓰요시(長谷川強)²⁾, 시노하라 스스무(篠原進)³⁾, 사에키 다카히로(佐伯孝弘)⁴⁾의 전기론⁵⁾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무스메 가타기』의 무스메(娘)의 성격을 분석하여, 당시의 사회상을 그려본 모리시타 미사코(森下みさ子)의 논문⁶⁾ 등있다. 특히 나카지마 다카시(中嶋隆)⁷⁾는 『무스메 가타기』와 『무스코 가타기』를 연관지어 분석한 바 있으나, 화소(話素)의 유사성 및 상이성을 지적하는 데에 그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를 확장하여 두 작품의 연관성에 주목하고, 이것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파악해보고자 한다. 본고에서 사용하는 저본은 『新日本古典文學大系78』(岩波書店)이다.

2) 長谷川強 『浮世草子の研究』(櫻楓社, 1969) 363-366쪽 참조

3) 篠原進 「『世間娘容氣』論」(弘前學院大學同短大紀要, 1980, 3)

4) 佐伯孝弘 「其磧氣質物の方法—西鶴剽窃の意圖」 『日本文學』(日本文學協會, 1989, 8), 『江島其磧と氣質物』(若草書房, 2004, 7)

5) 이들은 『무스메 가타기』가 사이카쿠(西鶴)의 여러 작품을 비롯하여, 조루리(淨瑠璃) 등 연극에서 문장의 표절, 응용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내용이며, 이는 선행 작품 내지는 문장을 알고 있는 독자에게는 기지(既知)의 즐거움을, 혹은 선행 작품을 모르는 독자에게는 사이카쿠의 훌륭한 문장을 알림으로써 작품을 읽는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6) 森下みさ子 「江戸に吹く『娘風』」 『日本文學』(日本文學協會, 1997, 10)

7) 中嶋隆 「西鶴と其磧—『模倣』の美學」 『國語と國文學』(東京大學國語國文學會, 2003, 5)

2. 본론

2.1 『무스메 가타기』의 서문

우선 아래의 『무스메 가타기』, 『무스코 가타기』, 『니주후코』의 서문을 순서대로 살펴 보자. 이는 각 작품의 성격을 개괄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서문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무스메 가타기』의 특징을 한층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무스메 가타기』)

처녀가 바뀌어 며느리가 되고, 며느리가 바뀌어 시어머니가 되고, 시어머니가 바뀌어 할멈이 되고, 선조를 모실 불당 하나 없는 신세가 되어 죽는다. ①이러한 할멈은 어릴 적부터 부모의 사랑을 받고, 과분하고 소중하게 자라 제 맘대로 행동하고, 여자로서의 도를 구분하지 못하고, 평생을 손자의 귀찮은 존재가 된다. 이는 모두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과 같이, ②어릴 적부터 가르침을 듣지 않고, 제 멋대로 자랐기 때문이다. 무릇 여자의 길이란 반드시 재주와 지혜가 남보다 뛰어난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여자의 길이란) 정절을 제일로 하고, 음란한 마음을 물리치고, 가정 일에 마음을 두고 남편에게 잘 대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기에 예기(禮記)에 혼례에 대해 적혀있고, 시경(詩經)에는 아내의 덕을 칭찬하여 관저의 편을 (들어) 쏙스러워 한다. 요즘 세상에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잘 아는 것이 호색의 길이다. 그저 그 색에 관한 것을 올바르게 바꾸라고 가르치고 싶은 여성의 기질을 모아, 이에 바로 이름을 붙여, ③세상 사람들을 위로하고 싶을 따름이다. (번호, 밑줄 필자, 이하 同)⁸⁾

(『무스코 가타기』)

사람이 태어나서 8살에 소학을 배우고, 15살에 대학을 배우는 것은 옛날 일이다. 요즘 아이들을 보니, 8살에 곰방대를 물고, 15살에 시나이치바이(부모가 살아있을 때에 돈을 빌려, 부모가 죽으면 그 유산을 받아 두 배로 갚는 것)를 이용하여 유녀를 얻어내는 속셈

8) 息女化して新婦となり、嬖妾じて姑となり姑妖で嬖なり、持仏堂とひとつに置所のない身となつてはてぬ。是等の嬖は幼なき時より父母の寵愛にあづかり、深閨の中に我ままにそだち、女の道をわきまへずして、一生孫子のもてあつかひものになれり。是皆三つ子の知恵八十迄をとるといへる世話のごとく、幼少より教を聞ず心の儘に育しゆへなり。すべて女の道といふは、かならずしも才智人に優れたるをいふにあらず。貞節の心を専にして、婬亂なる心を退世帯がたに心を籠て夫によくつかゆるをいへり。されば礼記に婚禮の事をのせ、詩経には女房の徳をほめて閑睡の篇をはじめ。今おしへずしてよく知れる好色の道ぞかし。ただ色にかへよと教たき女の容氣をあつめて、すぐに題号して世の慰草となす而已。

인데, 이를 아이들은 사람의 도리라고 생각한다. 과연, ④가르치지 않고서는 사람은 태어나서 (세상 물정을 스스로) 알 수 없는 법이므로, 도련님이라고 키쳐져서 제 멋대로 자라나고, 이유 없이 잘난 체하며, ‘각자의 가업에 마음을 두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라며 혼을 내고, 여러 가지 예능과 색에 빠져 방탕한 생활을 하는데, 이는 부자의 풍속이라 착각하고, 스스로의 잘못을 개선하려는 마음은 먹지 않고, 그 신분에서 어울리지 않는 잘난 척하는 데에 부모로부터 받은 유산을 다 날려버리고, 어찌까지는 다이진(大臣; 율곡에서 손님을 부르는 호칭.) 이라고 불렀던 남자가 오늘은 하리타테본(鍼立坊; 침술사)가 되어 늙어서 고생하는 사람이 많다.

⑤이는 모두 어릴 적부터 부자(父子)의 예에 어긋나고, 부모는 아이에게 효행을 다하고, 고혈을 짜 내는 정도의 고생을 하며 돈을 벌어 아이에게 주고, 아이는 부모를 촌스럽다고 우습게 여기고, ‘요즘 같은 세상에 저렇게 융통성이 없어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몇 번 주의를 줬는데도 누구를 닮았는지 고집이 세어,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라고 말하기까지 하는, 세상의 여기저기에 있는 특이한 아들들의 기질이 다양한 것을 적어 모아, 곧바로 제목을 붙여 출판하고, ⑥효를 장려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⁹⁾

(『니주후코』)

눈 속의 죽순은 야채가게에 있고, 잉어는 생선가게에 있다. 세상에서 천성 이외에는, 각자의 가업을 이루어, 그 녹으로서 만물을 얻고, 효를 다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이다. 이러한 사람이 드물고, 악인이 많다. 살아있는 모든 이는, 효의 길을 걷지 않으면, 하늘의 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예는 여러 지방을 견문할 때에, 불효자들이 내 눈앞에 그 죄 값을 보여주었다. 이를 출판하여, ⑦효를 장려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¹⁰⁾

- 9) 「孝に人生まれて八歳より小學に入、十有五にして大學にいたる、いにしへの法なり。今時の子供を見るに八歳にて烟筒(きせる)をくはへ、十有五にしては死一倍をかつて傾城を請出す魂胆、是人たるもの道とおもへり。むべなるかな、教ずして人生まれながらに知るものにあらざれば若子さまもてはやされて我僕にそだち、むしやうに高ふとまつて、をのが家業に心をよせるは至らぬかなといやしめ、諸芸色遊びにかかつて放埒に身を持を、銀(かね)持の風俗はかくこそと思ひ込で、自非をあらたむる心はなくて、分際不相應の奢遊びに親の譲り銀を皆になし、きのふ迄は大臣と呼し男、けふは太鼓の鍼立坊(はりたてぼん)となつて老て辛勞する人あまたなり。是皆幼少より父子の禮儀にたかひ、親は子に孝行をつくし、身の脂を出して設けてあてかひ、子は親を不粹なりと見くだし『今時あの堅きでは世間はつとまりませぬ。隨分異見いたせど誰に似てか片意地でなをされぬにこまる』とあちらこちらにかはつたる世間の子息形氣、さまざまなる事を書集めて、すぐに題號として梓にちりばめ、孝にすすむる一助ならんかし。」中嶋隆 現代教養文庫『世間子息氣質・世間娘容氣』(社會思想社, 1990)
- 10) 「雪中の筍、八百屋にあり、鯉魚は魚屋の生船にあり。世に天性の外、祈らずとも、夫／＼の家業をなし、祿を以て萬物を調べ、教を盡せる人、常也。此常の人稀にして、悪人多し。生といける輩、孝をなる道をいらざらば、天の咎を通るべからず。其例は、諸國見聞するに、不孝の輩、眼前にその罪を顯はす。是を梓にちりばめ、孝にすすむる一助ならんかし其例は、諸國見聞するに、不孝の輩、眼前にその罪を顯はす。是を梓にちりばめ、孝にすすむ

『무스메 가타기』의 서문에서는 요즘 여성을 옛 여성과 비교하여 비판하고 있다. 소위, 훌륭한 중국의 옛 글에는 정조를 지키고 지아비를 섬기는 여성이 예찬 받았는데, 현재의 여성은 중국의 옛 글에 나오는 여성들과는 거리가 멀다고 한다. 『무스코 가타기』의 서문은 잘못된 교육의 폐해가 낳은 아들들의 모습을 그럴 것을 예고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망나니 아들들을 거울삼아 효를 권장하는 교훈담이 되도록 작품을 전개할 것을 시사한다. 『니주후코』의 서문에서는 중국 옛 고사를 들어, 역시 『무스코 가타기』와 같이, 본 작품이 효를 권장하는 교훈담이 될 것임을 시사한다.

『무스메 가타기』에서는 현재의 여성이 개탄할 만한 신세가 되는 원인을 위의 ①, ②에서 밝힌다. 즉 여성이 신세를 망치는 근본적인 이유는 ‘부모의 과분한 사랑과 잘못된 교육’이라는 점을 간접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무스코 가타기』의 서문에서도 드러나 있다. 위의 ④, 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무스코 가타기』의 서문에서는 아들들의 잘못된 행동을 야기하는 원인이 바로 ‘부모의 과분한 사랑과 잘못된 교육’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니주후코』에서는 ‘교육’에 대한 언급은 확인할 수 없다.

한편 『무스메 가타기』의 서문 ③에서는 작품의 집필 의도를 확인할 수 있다. 즉 『무스메 가타기』의 집필 의도는 행동과 인식이 잘못된 여성들의 잘못된 행동들을 모아, ‘세상 사람들을 위로하고 싶을 따름’이라고 한다. 이는 언뜻 본 작품이 교훈담으로서 집필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세상 사람들을 위로하고 싶을 따름’이라는 문장으로부터 교훈담으로서의 성격을 부각시키기보다는 ‘오락성’을 부각시키려 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무스메 가타기』와 『무스코 가타기』, 『니주후코』의 서문에서는 각 작품의 성격이 다르게 부여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무스메 가타기』의 서문 ③을 『무스코 가타기』의 서문 ⑥과 비교해 볼 때, 『무스메 가타기』는 ‘효(孝)와는 무관하다’는 점과, 교훈담으로서의 성격보다는 ‘오락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점은 『무스코 가타기』 ⑥의 문말(文末) 어투와 같이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는 어투가 아니고, ③에서 보여주듯이 ‘위로하고 싶을 따름’이라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무스코 가타기』의 서문의 기저가 된 사이카쿠의 『니주후코』 서문, 그 중에서도 특별히 ⑦과는 거리를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서문만을 놓고 볼 때, 『무스메 가타기』는 『무스코 가타기』와는 달리 『니주후코』를 의식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직접적으로 『무스코 가타기』를 떠올리게

る一助ならんかし。」『本朝二十不孝』(對譯西鶴全集十, 明治書院, 1955) 3쪽.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무스메 가타기』의 서문은 교훈성을 강조하는 『니주 후코』보다는 『무스코 가타기』에 더욱 근접하며, 전작들에 비해서 오락성에 무게를 두었다고 볼 수 있다.

2.2 『무스메 가타기』와 『무스코 가타기』의 도입부

『무스메 가타기』는 전6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1권에서 4권까지는 각 3장으로, 5,6권은 각 2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6권1장의 이야기는 전혀 관계없는 두 종류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어, 전체 화소의 개수는 17화소라고 볼 수 있다. 그 중에서 『무스코 가타기』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은 8화소이다. 그러므로 단순히 이야기의 종류로만 따져 보아도, 『무스메 가타기』와 『무스코 가타기』가 무관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두 작품의 1권1장은 모두 상당히 긴 교훈담¹¹⁾이 이어지며, 그 실례로 드는 이야기는 앞의 교훈담에 비해 길이가 짧은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무스메 가타기』의 1권1장의 긴 교훈담으로 시작되는 구성은 충분히 『무스코 가타기』를 연상시킨다고 볼 수 있다. 이 점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원문 인용문을 살펴보기로 한다.

むかし誰かいひけん、親苦勞する其子樂する孫乞食すると。世界の子供の行跡を未然にかんがへ、いひ置し言葉は拙けれ共、まことなる金言今なを是を感じぬ。(中略)孫の代には古家一軒のこらぬやうになってはてる物ぞかし。(옛날에 누가 말하였던가? 부모가 고생하면 그 아이는 편안하고, 손자는 걸식을 하게 된다고 세상의 아이들의 행적을 걱정하여, 미리 생각해 놓은 말이지만, 진실 된 금언으로 현재에도 이 말을 뼈저리게 느낀다. [중략] 손자의 대에는 헌집 한 채 남아있지 않게 되어 최후를 맞을지이다.)¹²⁾

むかし
往古は律儀千万なるを人の娘氣質と申侍りき。近年は人の娘内儀もおとなしから
ずして、傾城遊女芝居の女形のなりさまをうつし。(中略)人たる人の小女^{こむすめ}はかく有た
き物ぞかし。(옛날에는 모름지기 의리 있는 사람을 무스메 가타기라고 말했었다. 요즘에는 딸, 아내도 안전하지 않아, 유행하는 유녀, 연극의 여성역할을 하는 이들의 모습을 흉내 내어, [중략] 사람의 딸이란 이러한 모습이었으면 한다.)¹³⁾

11) 두 작품 모두 약 3분의 2 이상이 교훈담으로 이루어진다.

12) 中嶋隆 現代教養文庫 『世間子息氣質・世間娘容氣』 중 『무스코 가타기』(社會思想社, 1990) 260쪽-261쪽 6줄.

각각의 교훈담은 『무스코 가타기』의 경우, ‘부모의 과분한 사랑과 잘못된 교육’으로 이어지고, 『무스메 가타기』의 경우는 ‘여성들의 외양 중시의 잘못된 가치관과 언행’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져, 그 구체적 전개 방향을 달리 하고 있다. 그러나 두 작품의 1권의 도입부는, 모두 ‘옛날에는(むかしは)’으로 시작되는 교훈담으로 막을 열고, ‘옛날 모습이 이상적이고, 요즘의 세태에는 문제가 있다.’고 하며 교훈담의 내용에 있어서는 공통점을 지닌다. 그런데 『무스코 가타기』의 교훈담에서 ‘부모의 과분한 사랑과 잘못된 교육’을 보여주며 역설적으로 효를 장려하는 방법은 그 서문의 언급과 일치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스메 가타기』에서 취한 교훈담 또한, ‘여성들의 외양 중시의 잘못된 가치관과 언행’을 보여주기 위해 앞서 취한 교훈담으로서, 이는 『무스코 가타기』와 같이, 궁극적으로 교훈적인 것을 제시하기 위한 교훈담일까?

여기서 기세키는 철저하게 독자의 기대를 저버린다. 혹은 기세키는 철저하게 서문의 입장에 충실하게 작품을 집필해 나아갔다고 볼 수 있다. 앞서 『무스메 가타기』의 서문에서 확인하였듯이, 본 작품은 교훈적인 무엇인가를 말하지 않을 것이며, ‘세상 사람들을 위로하고 싶을 따름’이라고 명언하였다. 그리하여 기세키는 『무스메 가타기』에 대한 독자의 기대, 즉 ‘『무스메 가타기』는 『무스코 가타기』를 잇는 가타기모노이므로 전작과 같은 오락성의 이면에 교훈적인 것을 그렸으리라’ 하는 독자의 기대를 저버리고, 작품 도입부터 반전의 재미, 즉 허를 찌르는 화소를 전개시킨다. 이 점은 『무스메 가타기』1권 1장의 내용을 확인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신부는 신혼 첫날밤, 유모를 찾고, 젖을 물고, 아이와 같이 투정을 부린다. 황당해 하는 남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태를 참고 이혼하거나 도망가지 않는데, 이는 신부가 가져온 지참금 때문이다. 한편, 유모와 시녀들은 신부를 위해 그림을 보여주고 북을 두들기고는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 북 소리를 신혼밤의 흥을 돋우는 소리로 착각한다.

위와 같은 내용은 결코 교훈적인 것이라 할 수 없다. 즉 『무스코 가타기』와 같이 ‘역설적으로 교훈적인 무엇인가를 제시하기’ 위해서 쓴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로부터 기세키는 『무스메 가타기』에 대한 독자의 기대, 다시 말해 ‘『무스코 가타기』를 잇는 가타기모노이므로, 전작과 같은 오락성의 이면에 교훈적인 것을 『무스메 가타기』속에서도 그렸으리라.’ 하는 독자의 기대를 저버리는 반전의 수사법을 전개시킨다.

13) 『世間娘氣質』 新日本古典文學大系78」(岩波書店, 1989. 8)390쪽-393쪽 15줄.

일찍이 사에키 다카히로¹⁴⁾는 기세키 가타기모노의 문장 표현에서 발견되는 반전의 수사법이 기세키의 가타기모노 특성의 하나라고 지적한 바 있다. 즉 독자가 이미 알고 있는 유명한 문장이나 글귀를 응용하고 덧붙여, 의외의 문장을 만들어 내는 ‘문장 표현의 반전’이 기세키 작품의 특징이라고 사에키는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종전의 ‘문장 표현의 반전’이라는 수사법에 덧붙여, 기세키는 ‘구상의 반전’도 사용하고 있음을 본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즉 『무스코 가타기』와 『무스메 가타기』의 도입부에서, 두 작품은 교훈담에서 실패로 흐르는 장(章)의 구성 방법에 있어서는 동일하지만, 후작이 『무스코 가타기』와 같이, 결코 교훈성을 내재한 작품이 아니라는 점은 기세키가 작품 전개에 있어서, 독자의 기대를 저 버리는 ‘구상의 반전’이라는 방법으로부터 파악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전술한 사에키의 연구에 덧붙여, 『무스메 가타기』는 ‘문장 표현의 반전’에 그치지 않고, 작품 도입부의 구상 그 자체가 『무스코 가타기』의 반전이라는 점을 주장하고자 한다.

2.3 『무스메 가타기』와 『무스코 가타기』의 공통 화소

지금까지 언급해 온 기세키의 구상상의 반전은 어디까지나 『무스메 가타기』가 『무스코 가타기』와 단순하게 유사한 작품이 아님을 증명하는 셈이 되었다. 그러나 『무스메 가타기』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많은 부분 『무스코 가타기』와 공통 화소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이미 선행 연구에 의해 언급된 것들이 있으므로, 이에 덧붙여 간략하게 설명하는 정도로 요약하고자 한다.

우선 『무스코 가타기』와 관련이 있는 화소를 간략하게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무스코 가타기』 권1의 1장에는 북을 잘 연주하여 ‘미다래 도조지(亂道成寺)’라는 곡(曲)도 칠 수 있는 아들이 등장하는데, 이는 아래의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분수에 맞지 않게 사치를 하고, 아이에게 예능을 열심히 시키고, 가업은 아버지가 처리하며, 일년 내내 북을 치게 하여, 마을 회의 때에 ‘아드님의 북 치는 솜씨는 이 나카히가시 야마(中東山)의 연습 때에 뵈었습니다만, 아마도 전문가도 미치지 못할 듯한 훌륭한 솜씨라고, 이것만이 사람들이 평가할 만한 것이었습니다.’라고 칭찬하는 것을 기뻐한다. 이윽고 아버지는 남의 말에 분수를 모르고, 이는 사람을 통해 귀족의 노 상연 때에 북을 치게 하고, 가문의 면목, 세상의 소문을 과하게 신경 써서, 돈을 들여 북치는 것을 배우게 하며,

14) 佐伯孝弘 『江島其磧と氣質物』(若草書房, 2004. 7)54쪽-128쪽 참조.

‘저의 아들을 벌써 [미다래 도조지]란 어려운 곳을 잡니다.’라고 아들 자랑을 하는데,¹⁵⁾

한편, 『무스메 가타기』4권 1장에서는 복을 잘 연주하는 아들이 아닌 딸이 등장하고, 이 인물 역시 ‘미다래 도조지’마저 연주 할 수 있다.

오빠보다 더 하여, 천성으로 박자감각이 좋고 북 치기를 좋아하여, 부모가 북치는 것을 배우지도 않고 잘 배워서, [미다래 도조지]까지 잘 전수받아, 사람들이 이 곳을 치게 하니, 잘 울리고 박자가 잘 들어맞는 것은 부모도 따를 수가 없었다.¹⁶⁾

다음으로 『무스코 가타기』1권 2장의 조닌(町人)으로서는 어울리지 않게 무예를 좋아 하는 아들의 등장으로부터 벗어지는 이야기이고, 이와 같은 화소에는 『무스메 가타기』2 권 1장의 「가정을 갖게 되어도, 돈보다도 무예를 좋아하여 목숨을 좋아하지 않는 여자(世帯持ても錢銀より命を惜まぬ侍の娘)」가 있다. 이 장에서는 딸의 신분이 무사의 여식이므로 무예를 좋아하는 것은 필연적일 수도 있겠으나, 여성이라는 신분에 어울리지 않게 무예를 좋아한다. 또한 둘 다 해피 엔딩으로 끝난다는 공통점도 있다.

세 번째로는 화소도 물론이려니와, 그 악행의 세세함도 공통적인 장면을 소개한다. 『무스메 가타기』4권 3장에서는 악행을 거듭하는 한 여성이 부모의 재혼 제의를 거절하기 위해, 2층으로 올라가 밥도 먹지 않는 척하고 피병을 부리는 장면이 등장한다. 이는 『무스코 가타기』1권 3장의 장면과 공통 화소이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무스코 가타기』)

시녀 구메에게 몰래 돈을 집어 주고, 4, 5일은 집밖에 조금도 나가지 않고, 조식, 중식, 석식, 때때로 준비해 놓는 식사 그릇을 바라보며 쓴 얼굴을 하고, 단 한입도 대지 않고, 먼저 먹기 싫다고만 말하고서는, 2층에 올라가서, 미리 준비해둔 식사를 마구 입에 집어넣고,¹⁷⁾

-
- 15) 「身代不相應に奢り、子供に遊芸をはげませ、家業の事は親父がさばき、年中打囃にかからせをき、町參會に『御子息のお鼓、此中東山の稽古能で承りましたが、中々扶持人の役者ともおよぶまいと、是のみ評判でござった』とほまそやすをよろこび、いよいよおやちのつて来て、内縁をもとめて貴人の御能の役をつとめさせ、家の面目世の外聞とむしやうに金銀いれてならひ事を傳授させ『身共が~~仲~~子はもはや亂道成寺をゆるされました』と子自慢せられるる中に、」
- 16) 「兄に増って天性拍子よく鼓をすきて、親の打つほどの事をならはずしてよくおほへ、亂道成寺の傳授事迄聞覺へて、うたせて見るにしかもよく鳴て間のよい事親もおよばず。」
- 17) 「腰元のくめに袖の下から黄なる物をにぎらせ置き、四五日は一寸外へ出ずして、朝食晝御飯食夜食、時々すすゆる膳に向ふてにがい顔して一口もくはず、先いやじやとさしおきて二階

(『무스메 가타기』)

부모가 심하게 서둘러 나를 시집보내려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고, 그 때부터 피병을 부리고, (중략) 2층으로 올라가 엎어져 자고 있는 곳에, 시녀가 살짝 와서 미리 준비해 둔 음식을 주고, 숨길 양식을 쟁여 두니, 열흘이 지나고 얼굴은 힘들어 보이지 않는데, 보통 때는 머리에 띠를 두르고, 두통이 있다며 피병을 부린다.¹⁸⁾

이 외에도 5가지의 공통 화소가 더 존재한다. 상세한 것은 지면상의 이유로 생략하기로 한다. 이로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스메 가타기』는 17화소 중에 8화소를 『무스코 가타기』와 공통 화소로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무스메 가타기』의 집필은 『무스코 가타기』를 전제로 하고 있었음에는 틀림없다. 다만, 현재까지는 위와 같은 공통 화소의 배치나 인용 정도가 어떤 규칙적인 필연성에 의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2.4 『무스메 가타기』의 결말부

『무스메 가타기』의 마지막 6권 2장은 상당 부분이 『니주후코』를 연상시킨다. 이 점에 대해서는 『무스메 가타기』 6권 2장 도입부와 『니주후코』의 5권 4장을 단순히 비교하여 보아도 일목연하다.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에 일본어 원문 인용문을 살펴본다.

(『무스메 가타기』)

奈良坂や時雨に菅笠もなく、手買といふ町より夜をこめての旅出立。きのふ迄は小辻の里にて二三さまとて名題の大臣、けふは切先のわるひ刀屋の宗齊といふものの子五三郎、諸芸に器用なりしが、鋼鐵反へまはりぬけ鞆持ての喧嘩好。親にいくたびか袴を着せ、常にも不孝なれば、目せばき所よりいひたて舊里きらせて、その里を追ひ出しの鐘の鳴るとき、春日野を跡に、いつか仕合せよく、かへり三笠山も今が見おさめとなりなん事もと、何とやらかなしく大明神を恨み、氏子は千金にもかへ玉はぬと御事なるに、今式朱ひとつなくて寒空に綿入の布子さへ、木津川のわたしにのって遙々の東路にくだるをあはれととふ人もなしと、ひとりごとの浪に聲ありて、佐保

へあ가って、くだんのつくね食をしたたかせしめ、」

- 18) 「父母のむしやうにせいて念も入ずにはやう仕付たがらしやるが聞へぬと、是より作病かまへ(中略)二階へあがり打臥てゐる所へ、こしもとそっとつくね食してあてがひ、かくして兵糧つめをけば、十日たつてもおもてむき何喰ひでもくるしからず。不斷鉢巻きして頭痛がするとの作り顔。」

の川を打ちわたりてと、謠を門々にて唄ひ、勸進してやうやう袂に米ばかり。おあしといふ物は一文さへなき膳所の晝休みに、旅人のしたためするを見て腹をふくらかすより外なき所へ、ぬけ参りの娘と身へて、(비가 오는데 우산도 없이, 데카이라는 동네에서 밤을 세며 여행길을 떠난다. 어제까지는 고즈치의 니산사마라고 불렀던 한량 양반, 오늘은 칼끝이 좋지 못한 칼 가게의 소사이라는 이의 아들 고사부로이다. 그는 여러 가지 예능에 능한데, 칼이 훨 정도로 싸움을 좋아한다. 부모가 몇 번이고 망신을 당하고, 항상 불효를 하니, 동네가 좁은지라 그는 부자간의 연을 끊기고, 그 동네를 쫓겨났다. 종이 울려 가스가노를 뒤로하고, ‘고향도 이제 마지막으로 보는구나.’ 라며 마음이 울적하여 대명신을 원망한다. 성씨는 천금에도 바꾸지 못하는 것인데, 그에게는 지금 돈 한 푼 없어, 추운 하늘아래 솜 옷 하나 없고, ‘강을 건너 동쪽으로 향하는 이 몸을 불쌍히 여기는 이 하나 없구나.’ 라며 혼잣말을 한다. 이렇듯 강을 건너, 노래를 부르고 다니니 겨우 쌀을 얻어 먹으며 연명한다. 돈이라고는 한 푼도 없어, 다른 여행객들이 밥 먹는 것을 구경하며 겨우 배를 채우고 있는데, 참배하고 나오는 처자로 보이는 이가)

(『니주후코』)

奈良坂や、時雨に菅笠もなく、手具といふ町より、夜をこめての旅出立、鶏も、われと鳴きくらべして、行くは誰がこぞ。刀屋徳内といふ者のせがれ、諸芸に器用なりしが、鋼鐵反へまはり、ぬけ鞘持ての喧嘩ずき、常にも不孝なれば、目せばき所よりいひ立て、舊里きらせて、その里を追ひ出しの鐘の鳴るとき、春日野を跡に、春日野を跡に、いつか仕合せよく歸り、三笠山も、今が見おさめとなりなん事もと、何とやらかなしく、大明神を恨み、氏子は、千金にもかへ給はぬと御事、金子一步もなく、遙々の、東路にくだるを、哀れととふ人もなしと、獨り言の、浪に聲ありて、佐保の川を打ち渡りてと、謠を門々にて唄ひ、勸進して、漸々四十七日目に、御江戸に着きて、(비가 오는데 우산도 없이, 데카이라는 동네로부터 밤을 세며 여행길을 떠난다. 닭도 서로 울러대는 이 길을 가는 이는 누구인가? 이는 바로 칼 가게의 도쿠나이이라고 하는 이의 아들이다. 그는 여러 가지 예능에 능한데, 칼이 훨 정도로 싸움을 좋아한다. 항상 불효를 하니, 동네가 좁은지라 그는 부자간의 연을 끊기고, 그 동네를 쫓겨났다. 종이 울려 가스가노를 뒤로하고, ‘고향도 이제 마지막으로 보는구나.’ 라며 마음이 울적하여 대명신을 원망한다. 성씨는 천금에도 바꾸지 못하는 것인데, 그에게는 지금 돈 한 푼 없어, ‘강을 건너 동쪽으로 향하는 이 몸을 불쌍히 여기는 이 하나 없구나.’ 라며 혼잣말을 한다. 이렇듯 강을 건너, 노래를 부르고 다니니 겨우 쌀을 얻어 먹으며 연명한다. 겨우 47일 만에 에도에 도착하여.)

위의 인용문을 살펴보면, 『무스메 가타기』6권 2장은 『니주후코』의 5권 4장의 배경설

정과 묘사가 거의 일치한다. 다만, 단순히 등장인물의 이름과 행선지 등의 세세한 설정만이 변경되었을 뿐이다. 이렇듯, 두 작품의 마지막 장의 도입부는 상당히 유사함을 발견할 수 있다. 게다가 『무스메 가타기』의 6권 2장의 결말부와 『니주후코』5권 4장의 결말부 또한 상당히 유사하다. 그런데 『무스코 가타기』의 마지막 장인 5권 3장의 결말부가 『니주후코』의 결말부와 상당히 유사하다는 점 또한 간과할 수 없다. 그러므로 『무스메 가타기』 6권 2장의 결말부분은 『무스코 가타기』와도 상당히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각 작품 마지막 장의 결말부분을 살펴보기로 한다.

(『무스메 가타기』)

칼 가게 간판을 내고 장사하며, 무사들에게 칼을 팔고, 10년도 지나지 않은 사이에 일만냥의 부자가 되었다. 나라로부터 약혼하였던 오소메와 함께, 부모도 함께 에도로 불려, 아침, 저녁으로 효도를 다하여 편안하게 살았다. 이는 모두 정숙한 여자의 덕으로, 영화를 누리는 것이다. 사악한 옛날의 마음을 반성하고, 지금을 올바르게 세상을 살고, 니혼바시 근처에 저택을 짓고, 은거하는 집마저도 번창하여, 옛날의 ‘나라도(奈良刀)’ 지금은 금으로 만들어 상자에 고이 모시고, 오래도록 대대로 에도에 안주하여 잘 살았다고 한다.(刀脇指の拵所の看板出し、御屋敷方へ出入、十ヶ年たため内に一万兩の分限になって、南都より契約のおそめはいふにおよばず、舅姑ぐるみに江戸へむかへ、朝夕女夫孝行をつくし、心のままの暮らし。是皆貞女の道をたてる娘の影にて、榮花の老のいまひ、邪なるいにしへの心を悔み、今直なる世をわたりて、日本橋のほとりに角屋敷、隠居おもやとみに家さかへ、むかしの奈良刀、今金作りにして箱おさめ、永代松の朶をならさず、此御時江戸に安住してなを悦びを重ねける。)

(『무스코 가타기』)

교토에 올라 니쥬도리에 가게를 내고, 약 가게 등의 장사를 크게 하여, 새로운 부자라고 소문이 무성하였다. 오사카로부터 아버지를 맞이하여, 아침, 저녁으로 효도를 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자선을 베풀며 살았다. 영리한 아이가 있어, 세상살이에 부족함 없이, 교토에 안주하고 잘 살았다고 한다.(都にのほり二條通に棚出して、鮫樂種のしやうばい手廣く、新長者とあふがれて、大坂より親父をむかへ朝夕孝行をつくし、人のためとなり、慈悲善根をして直なる世をわたり、發明なるこどもをもちて、世に不足なく京に安住して、なをよろこびをかさねける。)

(『니주후코』)

그 후, 도쿠사부로는 도오리마치에 가게를 내고 크게 번창하여, 금세 부자가 되었다. 이

리하여 나라로부터 두 부모를 모시고, 아침, 저녁으로 효행을 다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선을 베풀며 살았다. 니혼바시 근처에 있는 저택이 나날이 번창하여, 옛날에 만든 '나라도'는 지금은 금으로 만들어 상자에 고이 모시고, 오래도록 대대로 예도에 안주하여 잘 살았다고 한다.(その後、徳三郎は、通町に棚出して、商ひの道廣く、程なく分限になりて、南都より二人の親を迎へ、朝夕、孝行を盡くし、人のためとなり、慈悲善根をして、直なる世をわたりて、日本橋のほとりに角屋敷、次第に家さかえ、昔の奈良刀、今、金作りにして、箱に納め、永代、松の枝を鳴らさず、この御時、江戸に安住して、なほ、悦びを重ねける。)

우선 『무스코 가타기』의 결말부는 언뜻 보기에는 『니주후코』, 『무스코 가타기』의 결말부와 매우 유사하다. 그런데 『무스코 가타기』는 『니주후코』를 단순히 문장 표현에 있어서만 인용할 따름이다. 한편, 『무스메 가타기』의 6권 2장은 『니주후코』 5권 4장의 주요 모티브인 '나라도(奈良刀)'를 비롯하여, 주요 배경과 설정을 빌려와 인용하였다. 다만 전자에서는 처녀의 등장으로 인해, 이야기의 초점은 '효'가 아닌, 여성의 '정조(貞操)'로 변용되었다는 점이 새로울 따름이다. 이로서 『무스메 가타기』 6권 2장은 『무스코 가타기』 보다는 『니주후코』를 인용하였다는 점, 그리고 그 인용정도가 확연하다는 점을 밝혀낼 수 있었다. 그런데 왜 기세키는 『무스코 가타기』가 아닌, 『니주후코』를 확연하게 인용하였는가?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세키의 의도된 '구상 반전'이란 수사법이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앞선 2장 2절의 '『무스메 가타기』와 『무스코 가타기』의 도입부'에서 밝혔듯이, 독자는 『무스메 가타기』가 『니주후코』를 기저로 하는 『무스코 가타기』를 좇은 작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만, 그 『무스메 가타기』의 성격은 『니주후코』와는 달리, 오락성과 교훈성을 동시에 지닌 작품이라고는 판단하기 어려웠다. 그러므로 독자는 자연히 『무스메 가타기』의 성격을 『니주후코』와 『무스코 가타기』중에서 후자에 더욱 가까운 것으로 읽어 나아갔을 것이다. 그런데, 정작 마지막 장에 이르러, 기세키는 다시 한번 그의 특기인 반전의 수사법을 구사하고자 한다. 즉 독자는 줄곧 『무스메 가타기』가 『무스코 가타기』를 좇는 작품으로서 이해하며 읽어 나가고 있었다. 그런데 마지막 장에 와서, 기세키는 독자의 허를 찔러, 『무스메 가타기』를 『무스코 가타기』가 아닌, 『니주후코』를 연상시키는 작품으로 만든 것이다. 이로 인해, 독자는 줄곧 믿어왔던 스스로의 추측을 뒤엎을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무스메 가타기』의 구상이 반전을 전제로 진행되었

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증거가 된다.

3. 결론

이상으로 본고에서 행한 작업에 의해 밝혀진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무스메 가타기』의 서문을 『무스코 가타기』, 『니주후코』의 두 서문과 비교해 볼 때, 본 작품은 『무스코 가타기』를 떠올리는 단순한 오락성에 무게를 두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기세키는 『무스메 가타기』에 대한 독자의 기대, 즉 『무스코 가타기』를 잇는 가타기모노이므로, ‘전작과 같은 오락성의 이면에 교훈적인 것을 『무스메 가타기』속에서도 그렸으리라.’ 하는 독자의 기대를 저버리고, 작품 도입부부터 반전의 재미, 즉 허를 찌르는 화소를 전개시킨다. 세 번째로, 『무스메 가타기』는 17화소 중에 8화소를 『무스코 가타기』와 공통 화소로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무스메 가타기』의 집필은 『무스코 가타기』를 전제로 하고 있었음에는 틀림없다. 마지막으로, 서문과 도입부에서 기세키의 『무스코 가타기』반전의 의도를 알아차린 독자는, 『무스메 가타기』의 성격을 『니주후코』와 『무스코 가타기』중에서 자연히 후자에 더욱 가까운 것으로 읽어 나아갔을 것이다. 그런데 정작 마지막 장에 이르러, 기세키는 다시 한번 그의 특기인 반전의 수사학을 구사하고자 한다. 즉 독자의 허를 찌러, 『무스메 가타기』로부터의 거리를 『무스코 가타기』가 아닌, 『니주후코』쪽으로 좁힌 것이다. 이로 인해, 독자는 줄곧 믿어왔던 스스로의 추측을 뒤엎을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무스메 가타기』의 구상이 반전을 전제로 진행되었음을 의미한다.

본고에서는 『무스메 가타기』가 『무스코 가타기』를 뒤이은 가타기모노 작품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연구를 진행해온 결과, 위의 4가지 측면은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무스메 가타기』는 『무스코 가타기』의 영향을 가장 농후하게 받고, 공통 화소로 인하여 유사성을 확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즉 『무스메 가타기』가 『무스코 가타기』의 후작으로서의 특성이 있음에는 틀림없다. 다만, 그 구상에 있어서 『무스코 가타기』를 강하게 의식함과 동시에, 이를 반전하거나 응용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에는 틀림없다. 이는 『무스메 가타기』의 도입부의 구체적 문장에 의해서 입증되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기세키는 반전의 수사법을 사용하여, 『무스메 가타기』의 결말부를 『무스코 가타기』가 아닌, 『니주후코』

에 가까워지게 한다. 이렇게 서문으로부터 구상의 반전은 크게 도입부와 결말부에서 두 번 행해지는 것이다.

이로부터 『무스메 가타기』의 구상은 『무스코 가타기』와 같이 『니주후코』의 ‘효’라는 단 하나의 큰 모티브만을 좇아가는 것이 아님을 알았다. 오히려 전작 『무스코 가타기』와 같이 『니주후코』를 좇는 단순한 구상으로부터 벗어나, 『무스메 가타기』는 『니주후코』와 『무스코 가타기』를 동시에 좇는 움직임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세키의 두 번의 걸친 구상의 반전은 전작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새로운 시도라는 의의를 지닌다. 또한 기세키의 『무스메 가타기』의 집필 방법이 『무스코 가타기』와 같은 단순히 문장 표현의 수사적 반전만이 아닌, 구상의 반전을 이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고찰 결과를 발판으로 삼아, 『무스메 가타기』이후의 가타기모노의 흐름을 좇는 것을 앞으로의 과제로 남긴다.

참고 문헌

- 『けいせい色三味線・けいせい傳授紙子・世間娘氣質』新日本古典文學大系78, (岩波書店, 1989, 8)
- 長谷川強 『浮世草子の研究』(櫻楓社, 1969)
- 中嶋隆 現代教養文庫 『世間子息氣質・世間娘容氣』(社會思想社, 1990)
- 『本朝二十不孝』(對譯西鶴全集十, 明治書院)
- 佐伯孝弘 『江島其磧と氣質物』(若草書房, 2004, 7)
- 中野三敏 『戲作研究』(中央公論社, 1981, 2)
- 中村幸彦 『戲作論』(角川書店, 1966)
- 篠原進 「『世間娘容氣』論」(弘前學院大學・同短大紀要, 1980, 3)
- 佐伯孝弘 「其磧氣質物の方法—西鶴剽竊の意圖」 『日本文學』(日本文學協會, 1989, 8)
- 森下みさ子 「江戸に吹く『娘風』」 『日本文學』(日本文學協會, 1997, 10)
- 中嶋隆 「西鶴と其磧—『模倣』の美學」 『國語と國文學』(東京大學國語國文學會, 2003, 5)